

만나서 반가워요~! ^^*

제 1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이 선거운동본부는 연세대 곳곳의 여성 자치단체를 하는 사람들과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모여서 꾸린 선본입니다. 한 천년이 다 가기 전 여성주의의 진정한 확장과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를 활발한 소통과 논쟁, 놀이의 판으로 만들고파하는 사람들이죠. 여성주의적인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에서 여성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힘차게 꾸려나가는 데 당신도 한 몫 하실래요?

당신이 해야 할 일

No.1 과나 반 혹은 단대 주변에서 총여선거에 관한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총여 선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선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등이 되겠지요. 자잘한 것이라도 기억을 했다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No. 2 후보들의 유세나 정책/공약/기조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보들의 강의실 유세나 합동 유세 혹은 다른 공간에서 후보와 유권자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나 후보들의 모습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기탄없이!

또한 전체적인 정책이나 소소한 공약, 기조에 관한 모니터도 필요합니다.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의 얼굴이 아니라 정책이겠지요. 자료집이나 리플렛 등에 있는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바로 알려 주세요.

No. 3 본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선전 및 홍보.

▶이야기로. “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이런 게 좋더라..”부터 시작해서 “이 선본은 이러이런 게 좋고, 자료집이 여기가 재미있고.....”等等 다양한 방법으로.

▶연서받기, 자료집 및 리플렛 배포/부족분 등 체크

연서받기는 그야말로 연서판을 들고 다니면서 연서 받기. 자료집과 리플렛/신문 등은 나오는 그 날 바로바로 선본방에 와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미 각 단대에 배포된 것을 과방 등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못 본 사람도 많은데 배포가 안 됐다거나 다 없어졌을 경우 바로 연락을 주시거나,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몸으로.

한마디로 선본의 옷을 당신의 몸에! 이번 선본에서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직접 들으시길. *주의! 휴학생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No. 4 참관인

투표날 공강시간 등에 가능한 단대 투표소에 명찰달고 앉아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참관인을 한다면 총학에 학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No. 5 세미나 - 하시겠습니까?

주/의/사/항

그야말로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됨. (휴학생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심!)

모니터용지를 돌리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연서를 받을 때는 공약 선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저녁 여섯 시 이후 혹은 토요일엔 자료집, 리플렛 배포를 할 수 없고 옷도 입으면 안 됩니다. 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모니터 용지가 나갈 것입니다.)

일 정

10/24 선본 전체 모임 10/29-31 모니터 용지 배부 11/1-3 연서 11/3 연서 이후 모임

11/4 리플렛 배포 11/8 자료집 배포 11/11 신문 배포, 참관인 명단 제출

여기 써 있는 날 말고도 지속적으로 선본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해야 합니다. 비상 시에는 015-7727-1753(술래)으로 연락해주세요.